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마 12:22-30)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관록 할 만한 통신의 발달로 매일, 매 순간 수 천, 수만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고독과 소외감 속에 절망을 호소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독하고 소외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귀신들려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22절).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빈정거리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24절).

1. 논리적인 오류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귀신끼리 싸운다는 것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결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25-26절에서 그들이 결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2. 현실적인 오류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27절).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었다면, 너희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고 반문하시며 저들에게 현실적인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3. 일반적 상식의 오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29절).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이 강탈해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강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더욱 강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으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Kingdom of God that has already Come

(Matt. 12:22-30)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any period of history, the most serious disease for man was despair because despair makes man die.

W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live every day an era of develope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le we communicate each other every minute. Nevertheless, too many people thoroughly give in to despair in the midst of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text, a most lonely and isolated man appeared at the time of Jesus. He was no other than a demon-possessed man who was blind and mute. "Then they brought him a demon-possessed man who was blind and mute, and Jesus healed him, so that he could talk and see. (v. 22). However, the Pharisees among people who saw Jesus' miracle made sarcastic remarks toward Jesus and they said that he drove out demons by Beelzebub, the prince of demons (v. 24).

1. A logical error

If Jesus drove out demons by the power of demon, which means that demons fight each other. But it is not logical because demons never fight each other. They always have the same purpose. Demons are a single army are against God. In verses 25-26, Jesus points out the logical error that they never dispute.

2. A realistic error

"And if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by whom do your people drive them out? So then, they will be your judges (v. 27).

At that time, the right and spiritual leaders among the Pharisees had ever driven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Jesus answered back that if the fact that he drove out demons was driven by the Beelzebub, the Pharisees would have been driven out by Beelzebub. He pointed out their practical errors to them.

3. The error of general common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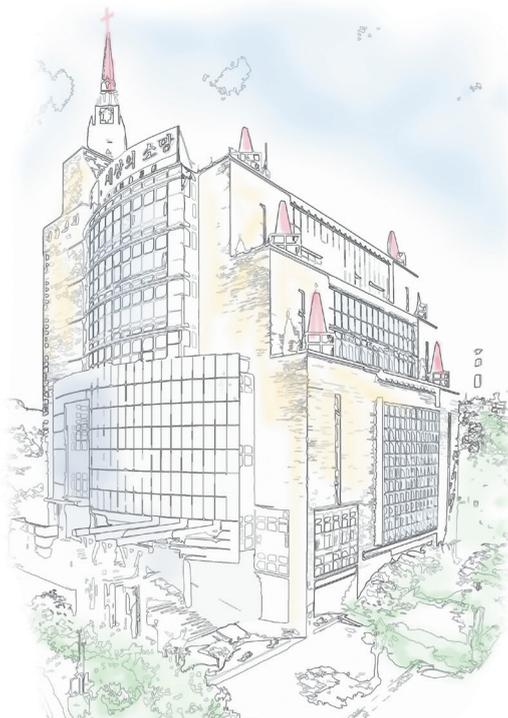
"Or again, how can any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v. 29)

Here, the strong man refers to Satan. Jesus first tied up Satan, and he again took back God's people whom Satan robbed. Although Satan is strong, our Lord is far more stronger.

My beloved Christians,

Because Jesus came to our life and dro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upon our life.

We cannot win a victory at a battle of Satan with only our power and wisdom. Jesus must come upon us. By fighting with demons with the name of the L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winners of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상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3월 3일(월) ~ 5월 11일(주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 3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상반기 열린프로그램을 개강한다. 기간은 3월 3일(월)부터 5월 11일(주일)까지 10주간이다. 소정의 수강료가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 과목 (10주)	예레미야서	월, 오전 10:00~11:00	조원영 목사
	야고보서	금, 오전 6:00~7:00	박영준 목사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602호
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20~4:30	배경애 전도사	903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40 ~ 3:00 (3월16일~5월18일)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3월16일~4월13일)	서준권 목사	906호
수화교실 초급반 (16주) 중급반 (16주)	주일 오후 1:00~1:50 (2월 23일~6월 15일)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3월4일~5월13일)	박영준 목사 구본혜 전도사 양세라 전도사	802호
영, 유아 어머니 하트스쿨	목 오전 10:30~12:30 (3월6일~5월 8일)	구본혜전도사	706호
BBS 비블리오퍼비블학교	토 오전 10:00~12:00 (3월8일~5월 10일)	양세라 전도사	702호

2014년 순결서약식

-신청 및 교육은 부서별로-

-순결서약식 : 4월 20일(부활절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2014년 순결서약식이 4월 20일(부활절) 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기록하니 너



희도 몸을 구별하여 기록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교육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3월 둘째주 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제4기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오늘부터 접수 시작

- 접수 시간: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후
- *접수 장소: 1층 로비 접수대
- *모집 인원: 선착순 40명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 *교육 주제: “어린이를 위한 말의 힘”
- *교육 기간: 3월 15일(토)부터 11주 (토요일 오전 10:00-12:30)
- *자세한 사항은 접수대에 비치된 안내문 참고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1)

(문 121)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연대기가 역대기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약 18개 또는 20개 정도가 역대기와 사무엘-열왕기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기사를 조심스럽게 읽고 보면 거기엔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는 실은 다른 그룹 또는 다른 백성이나 다른 사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역대상11:11과 삼하23:8; 대상21:5과 삼하24:9; 대하3:16과 왕상7:20(42); 대하8:10과 왕상9:23; 대하36:9과 왕하 24:8을 찾아보시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대하9:25에서 ‘솔로몬의 병거 메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라고 했는데 왕상4:26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라고 했습니다. 대상 11:11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라고 했다. 그러나 삼하23:8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 목이라 그가 단번에 팔백 명을 쳐 죽였더라’고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삼상6:19인데 이 구절과의 뜻구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케를 들여다 본 까닭에 (오만)칠십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케를 들여다 보았을까하는 의의가 있으나 이는 그 당시 벳세메스에 살던 주민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본을 만들 때 필경사의 오류로 숫자나 인명 또는 지명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고 특별히 높은 숫자를 말 할 경우 점 하나 천을 말함으로 자주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본에 종이 먹거나 부패하여 찢어져 없어질 경우 글자 위에 점을 읽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왕하18:13에서도 히스기야왕 제 십사 년이라 했으나 이십사 년으로 읽혀졌습니다. 사본에 있는 글자 위에 낙시가 하나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차이는 대부분 다른 사건이거나 사본 필경 시 생긴 오류일 뿐입니다.

(다음 주 계속)



올해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3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 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행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해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3.1절 특별 기고



1919년,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통치 아래 수난을 겪어야 했던 민족을 일깨우고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3.1만세운동이 올해로 95주년을 맞이했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이 운동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 하에 신음하던 많은 약소국들과 세계사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큰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3.1만세운동에서 그 핵심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당시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이승훈, 박희도, 오화영, 최성모, 이필주,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신홍식, 정준수, 이갑성, 김창준, 박동완, 신석구 등 16명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월남 이상재, 단재 신채호, 유관순, 안중근, 조만식, 백범 김구, 안창호, 서재필, 이준, 김교신, 이승만, 장준하 등의 기독교인 독립투사들이 이 운동을 전 후로 일제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상적 공백과 이념적 사분오열이 있었던 당시 사회를 하나로 연합하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을 불문한 거족적인 민족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된 이 운동은 기독교인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거점으로 한 평신도들의 활약으로 이어졌으며, 해외의 독립투사들은 불의와 억압에



민족대표33인

저항하되 비폭력운동을 지향한 이 운동을 국제 사회에 알리며 세계의 여론을 움직여 나갔다. 당시 전국적으로 피검된 목사의 수가 242인에 달하고 이 운동에 대한 일제의 참혹한 보복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

하지 않다.

구국의 선봉에 섰던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속한 시대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평화로운 조국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성만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3.1만세운동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같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선진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국가로 머물러 있으며 불신과 불의가 난무하는 지금의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3.1만세운동의 정신과 이에 동참한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명실상부한 복음의 산실이 되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합당한 일꾼 되기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구원할 수 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나소정 집사 (편집부)

부서소개 - 상담부

원더풀 카운슬러



이강진 장로 (상담부 부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원더풀)라, 모사(카운슬러)라” 하였습니다(이사야 9:6).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슬러(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그 측량할 수 없이 충만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의 짐을 풀어드리는 놀라운 상담자들이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길, 순례의 여정

에서 만나게 되는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관련된 법률문제(매매, 임대차, 등기, 소송, 고소 등), 보험문제 및 세무처리와 절세방법, 아들의 군입대에 관련된 병무문제, 영유아의 바른 양육 방법 및 청소년들과 부모 간에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바른 양육, 진학진도에 관련된 상담, 부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금주금연상담 등 모든 분야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교회 상담부는 조원영 목사님의 지도 아래 경륜이 풍부한 전,현직 경찰청, 국세청 및 병무청 공무원, 세무사, 법무사, 보험전문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물론,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등 교육과 가정상담 전문가들과,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과 관련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겸손히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담은 주일 오전 11:30부터이며, 모든 상담은 상담부 간사를 통하여 전화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부와 교육위원회가 협력하여 금년 3월 개강할 열린 프로그램에서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과 어머니 힐링스쿨을 개설하여 많은 영유아맘과 청소년 학부모를 비롯한 어머니들에게 자녀들과의 바른 관계형성과 상처의 치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예약 전화 010-5779-1329 이정희 권사

2회차 설교사역도교 교육

오늘 설교사역도교 2회차 교육(강사:박영준 목사)이 3부 예배후(오후 3:20-4:20) 506호에서 열린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월5일(수)부터 7일(금)까지 동일교회 봄사경회를 인도한다. 8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역회 16차 월례기도회 및 강연회를 갖는다.

- 당선 : 2교구 이동만 장로 사단법인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남성패션문화협회 회장
- 임용 : 4교구 손세일 집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 수상 : 1교구 엄성용 집사 한국 재능 나눔 대상
- 전시 : 15교구 전광영 집사 영국 런던 Bernard Jacobson Gallery 3월 12일-4월 17일
- 주간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뱀퇴진도회(3.2)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3.9)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201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김형상 집사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단장)

2014 여름단기선교지역을 방글라데시로 확정하고, 8월 초에 10일간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란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길고 험한 여정, 열악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곳에 가야하는 이유는 그 곳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30여년 전, 선교사들이 어두운 조선 땅 구석구석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무지한 백성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질병을 치료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조남혜 선교사의 어린이 중심 선교사역과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의 의료선교 사역이 현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주로 어린이 사역과 의료사역, 이미용, 지역섬김 등의 사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소요 경비는 일인당 항공료, 숙박비, 선교활동 비용을 포함하여 16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단기선교 단원은 선교대학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자는 3월 3일(월)부터 시작되는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해야 합니다.

비록 열흘간이지만 이번 선교가 성도님들의 삶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실 청년 형제자매들과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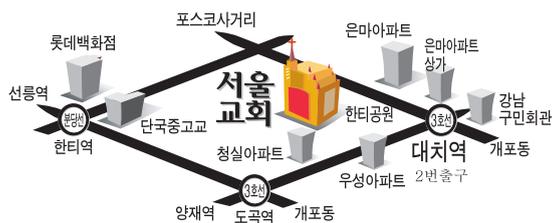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95주년 삼일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애국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큰 유익을 얻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